

h·well
국민건강보험

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

2018. 12. 28.(금)[조간]
(12.27.(목) 12:00 이후 보도)

담당부서	보장사업실				
부장	최서호	033)736-4303	배 포 일	2018. 12. 27.(목)[총3매]	
팀장	최경희	033)736-4330	배포부서	홍보실	부장 송상호, 팀장 차철호 033)736-1402, 1430

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수 올해만 1만개 이상 확대

▶ 2018년 12월말 기준, 전국 495개 병원 37천여 개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

-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김용익)은 정부가 국민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누적 제공병상 3만7천여 병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.
- 이는 지난 해 2만6천여 병상에서 올해만 1.1만 병상 증가한 것이며, 전국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495개 기관이 된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난해 말 전국 지역본부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담팀을 구성하고, 지역밀착형 참여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
- 본부-지역본부-지사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사업 참여확대 추진은 물론,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공기관의 운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추진을 병행하고 있다.

- 내년 1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지역 소재 기관의 참여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통합병동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고,
 - 그간 참여하는 요양기관의 시설개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사후 정산으로 지급되던 시설개선비를, 사업개시 준비 과정에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.
 - 또한, 야간전담간호사제 가산수가의 일부를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권고기준을 마련하고, 야간 시간대의 환자 안전을 고려하여 야간전담간호사 배치비율을 상향 적용(19.7월부터)한다.
 - 그 밖에도, 재활병동 지정요건 강화, 사후관리 기준 구체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할 예정이다.

- 공단 관계자는 “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모두가 보편적 입원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,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”이고 “현재 급성기 병원 중심의 병상 제공 확대와 더불어, 회복기·만성기 환자에게도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와 시범사업 등을 병행할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 - 한편,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며, 구체적 내용은 각 요양기관에게 향후 안내될 예정이다.

[참고자료]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종별·지역별 지정현황

(18.12월말 지정기준, 단위 : 개소, 개)

구분	개수	합계	서울	강원	부산 경남	대구 경북	광주 전라	제주	대전 충청	경기 인천
전체	기관	495	86	9	86	72	58	5	50	129
	병동	898	189	14	135	117	75	5	74	289
	병상	37,288	7,706	612	5,916	4,561	2,966	171	3,065	12,291
상급	기관	42	13	1	6	5	5	-	4	8
	병동	96	27	2	10	9	8	-	6	34
	병상	4,051	1,225	72	395	385	276	-	240	1,458
종합	기관	219	35	5	40	26	31	3	22	57
	병동	458	102	8	71	45	40	3	37	152
	병상	19,857	4,375	368	3,295	1,803	1,532	114	1,564	6,806
병원	기관	234	38	3	40	41	22	2	24	64
	병동	344	60	4	54	63	27	2	31	103
	병상	13,380	2,106	172	2,226	2,373	1,158	57	1,261	4,027